

한화 정민철 단장 상견례 한화 정민철 신임 단장(왼쪽)이 팀의 마무리훈련이 시작된 16일 충남 서산의 전용연습구장을 찾아 선수단과 상견례를 했다. 8일 단장으로 선임된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 정 단장은 선수단 앞에서 "명문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자. 많이 도와달라"며 인사를 겸한 짧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팀의 레전드이자 선배인 장종훈 수석코치와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 정 단장.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워싱턴 'NL 챔피언' 등극 창단 첫 월드시리즈 진출

워싱턴 내셔널스가 창단 첫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출발해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챔피언십시리즈(NLCS)까지 거친 언더독의 대반란이다.

워싱턴은 16일(한국시간)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NLCS(7전4선승제) 4차전 홈경기에서 '가을 좀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7-4로 누르고 파죽의 4연승을 신고했다. 1회말 6안타 1볼넷과 상대의 연이은 실책성 플레이로 얻은 7점을 끝까지 잘 지켰다. LA 다저스와 치른 NLDS(5전3선승제) 5차전 연장 10회초 결승 만루홈런을 터트리며 '가을 사나이'로 변신한 워싱턴의 노장 내야수 하위 켄드릭(36)은 15타수 5안타(2루타 4개·타율 0.333) 4타점의 맹타로 NLCS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1969년 창단한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모태인 워싱턴(2005년 연고지 이전)은 시애틀 매리너스와 더불어 월드시리즈를 경험하지 못한 '유이'한 구단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내로라하는 강자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마침내 리그 챔피언으로 우뚝 섰다. 몬트리올 시절까지 포함해 창단 50년 만이다. 워싱턴은 뉴욕 양키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맞붙은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승자와 23일부터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에서 자웅을 겨룬다.

한편 이날 양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ALCS 3차전에선 휴스턴이 양키스를 4-1로 꺾고 시리즈 전적 2승1패로 앞서기 시작했다. 두 팀의 4차전은 17일 양키스타디움에서 펼쳐질 예정이나 우천예보가 있어 정상적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워싱턴 투수 대니얼 허드슨(왼쪽)과 포수 얀 고메스가 16일(한국시간)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NLCS 4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를 7-4로 꺾고 4연승으로 창단 첫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한 직후 포옹하며 환호하고 있다. 워싱턴 | AP뉴시스

'벼랑 끝' SK, 3차전 선발 소사만 믿는다

'보험용' 소사 어깨에 달린 SK의 운명





헨리 소사(왼쪽)는 SK가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 교체 영입한 외국인 투수다.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벼랑 끝 3차전 승부에서 선발 중책을 맡았다. 키움 선발은 에릭 요키시다. 올 시즌 SK를 상대로 2승1패 평균자책점 2.97로 선전했다. 스포츠동아DB

소사, PS 7경기 2승 가을 경험 풍부
올 시즌 키움 상대로 ERA 3.00 준수
키움 요키시도 PO서 명예 회복 벌러

PO 3차전 예고 17일 목요일 오후 6시30분·고척

SK 소사 VS 키움 요키시

중계 : SBS TV

17일 PO 3차전 선발투수 2019시즌 성적 비교

헨리 소사(SK)	구분	에릭 요키시(키움)
16(2)	경기	30(5)
9승3패(1승)	승패	13승9패(2승1패)
3.82(3.00)	평균자책점	3.13(2.97)
1.14(1.25)	이닝당 출루허용	1.13(0.89)
6.0(6.0)	평균투구이닝	6.0(6.0)
10(1)	퀄리티스타트	19(3)
0.238(0.250)	피안타율	0.241(0.167)
15(1)	피홈런	9(3)
96(14)	탈삼진	141(21)

※ 괄호 안은 맞대결 성적
※ 요키시, 준PO 1경기 선발등판 (2.1이닝 7안타 3사사구 1삼진 3실점)

교체 영입의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다. 헨리 소사(34)의 어깨에 SK 와이번스의 운명이 달렸다.

SK 염경엽 감독은 6월 일찌감치 칼을 빼 들었다. 선발 투수로서 이닝을 길게 끌고가지 못하는 브록 다익손에게 이별을 고했다. 대체 요원으로 KBO리그 경력이 풍부한 소사를 대만 리그에서 데려왔다. 단순히 정규시즌에서 거둘 승리만을 따져 내린 선택은 아니었다. 당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SK에게 소사는 포스트시즌(PS)까지 내다보며 장기적 관점에서 들어둔 '보험'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SK는 8월 말 소사의 부진을 기점으로 급격히 내리막을 탔다. 부침의 원인으로 꼽힌 체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사에게 9월 초부터 16일간의 휴식을 부여한 와중에 타격 쪽에서 말썽이 생겼다. 외국인 선발 투수가 엔트리에서 제외된 가운데 타격 침체까지 겹쳐버린 SK는 9월 승률 0.444(8승10패)를 거두고 결국 2위로 밀려났다. 허무하게 정규시즌 우승을 놓쳤다.

어쩔 수 없이 키움 히어로즈와의 플레이오프(PO)로 PS를 시작하게 된 SK는 탄탄한 선발진의 강점을 적절히 살리지 못했다. 1차전에서는 팀 에이스 김광현이 무실점 피칭을 펼쳤지만 5이닝 투구에 그친 까닭에 불펜 투수가 7명이나 출동해야했다. 2차전 선발 투수 양헬 산체스는 4회 이후 난타를 당한 끝에 4이닝 6실점(5자책점)으로 무너졌다. 안방에서 2패를 떠안으며 탈락 위기에 몰린 SK로선 17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3차전 선발 소사의 반전 투구가 절실해졌다.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9월 3경기에서 평균자책점(ERA) 6.75로 흔들렸던 소사는 자신의 정규시즌 마지막 선발 등판 경기였던 같은 달 27일 삼성 라이온즈전서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는 2경기 ERA 3.00에 1승을 거두며 준수한 성적을 냈다. 하지만 고척에서 치른 1경기에서는 ERA 5.40를 기록하는 등 불안요소도 있다.

하지만 가을 야구 경험이 풍부하다. PS 통산 7경기에서 2승1패 ERA 2.94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2016년 LG 트윈스 소속으로 뛰었던 준PO, PO 3경기에서는 1승에 ERA 0으로 강력했다.

이에 맞서 키움이 3차전 선발로 내세운 에릭 요키시는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 LG와의 준PO 2차전을 통해 PS 데뷔전을 치렀던 그는 제구 난조로 2.1이닝 7안타 3실점으로 부진했다. 올 시즌 SK를 상대로는 5경기 ERA 2.97 2승(1패)을 수확했다. 여기에 장정석 키움 감독은 인천(3경기·ERA 4.34)보다 고척(16경기·ERA 3.08)에서 더 안정적이었던 요키시에게 홈경기 선발 등판을 맡기며 부담을 덜어줬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최선만 다하면 돼"…김광현에게 SK 팬들은 자부심이다

"팬들은 역전을 향한 노력에 응원 2009년 리버스 스윕 재현하겠다"

최익래의 피에스타

"당연히 우리 선수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기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응원할 거예요."

지난해 포스트시즌(PS)을 앞둔 SK 와이번스는 전광판에 팬들의 응원 영상편지를 상영했다. 팬들에 대한 감사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SK에겐 흔한 이벤트였다. 경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의 상영이라 모든 선수가 이를 유심히 보진 못했지만, 평소 꼼꼼히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왔던 김광현(31)의 시선은 그날도 전광판에 꽂혔다.

그는 한 팬의 말에 큰 울림을 느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만 한다면 우리 SK 팬들은 언제나 응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데뷔 첫해인 2007년,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추어 때부터 매일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잡혀있던 그가 처음으로 부담을 덜었던 계기다. 그리고 지난해 SK는 한국시리즈(KS) 우승을 차지했다.

"매 경기 이겨야 한다는 강박이 있고 패한 날엔 화가 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난해 그 팬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은 내려놓았다. '져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더라도 후회가 덜 남도록 그라운드 위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다. 플레이오프(PO) 3차전에도 등판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인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나를 지켜봐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어릴 때 스포츠 경기를 봐도 지고 있는 팀을 응원하게 되더라. 응원이라는 건 역전을 향한 노력을 향하는 것 같다. 나를, 그리고 SK를 응원해주는 팬들의 자부심이 되고 싶다." 올 가을, 김광현의 말이다.

정규시즌 190.1이닝을 던졌고, PS에서도 1선발로 나선 데다 시즌 후 프리미어12 대표팀에서도 1선발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를 둘러싼 상황은 좀처럼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런 그가 오늘도 스파이크 끈을 동여매는 이유는 결국 팬이다.

팬들도 이를 모를 리 없다. 프로이기에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 경기 이기진 못한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우승팀도 없다. 그럼에도 팬심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김광현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15일 키움 히어로즈와 PO 2차전을 찾은 SK 팬 정미진(26) 씨는 "다시 인천에서 PS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올 시즌이 아니라면 내년, 내년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승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계속 SK를 응원하겠다"고 다짐했다.

PO 1, 2차전을 홈에서 내준 상황. SK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 PO에서 1~2차전을 패한 팀이 리버스 스윕으로 KS 진출에 성공한 건 지난해까지 15번 중 2번으로 확률은 13.3%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두 번 중 한 번이 2009년의 SK다. 김광현은 "2009년에도 2연패 후 3연승을 했던 적이 있다. 분발하겠다"고 각오했다.

PO 2차전에서 만난 팬들은 "우리 SK", "우리 김광현 선수"라고 말했다. 사소한 표현이지만 SK의 일원으로서 '우리'라는 단어를 당연하게 쓴다. SK 팬들에게 김광현이 그렇듯, 김광현에게도 SK 팬들은 자부심이다.

ing17@donga.com

불펜 세대교체…김경문표 믿음 야구 시즌2

고우석·하재훈 등 경험부족 우려에
"단기전은 누가 미칠지 모른다" 신뢰

"누가 미칠지 모른다. 그게 단기전이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표팀은 11일 소집돼 훈련을 진행 중이다. 15일 LG 트윈스 선수들의 합류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췄고 훈련 강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표팀 투수진의 키워드는 '불펜 세대교체'다. 선발진에서는 여전히 김광현(31·SK 와이번스)과 양현종(31·KIA 타이거즈)을 향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불펜은 상황이 다르다. 조상우(25·키움 히어로즈), 고우석(21·LG 트윈스), 하재훈(29·SK 와이번스), 문경찬(27·KIA) 등 대표팀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대거 발탁됐다. 이들에게는 주무기가 강속구라는 공통점도 있다.

과거 국제대회에서 대표팀의 뒷문을 지켰던 이들은 대부분 '베테랑'이다. 구대성, 정대현(이상 은퇴), 오승환(삼성 라이온즈), 정우람(한화 이글스) 등 리그에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선수들이 뒤를 든든히 지켰다. 오승환을 제외하면 공이 빠르진 않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이번 대표팀 불펜진의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사령탑인 김 감독의 생각은 달랐다. 16일 수원에서 만난 김 감독은 "그걸 염려하진 않는다. 단기전은 누가 미칠지 모른다. 국제대회에서는 빠른 공의 위력이 크다"며 "국제대회는 호흡을 맞추는 포수부터 동기부여까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정규시즌 경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감독은 "당장 프리미어12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리나라의 뒷문을 지켜줘야 할 선수다. 이번 대회 결과가 나빠도 그 자체로 좋은 경험이다"며 두터운 신뢰를 드러냈다. 국민들에게 짜릿함을 안겨줬던 '김경문표 믿음의 야구' 시즌 2는 불펜이다. 이들의 성장세를 지켜보는 것도 프리미어12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수원 | 최익래 기자